

文香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



지난 2001년 금강 인근에 건립된 문학관은 작가 채만식의 문학적 생애와 작품세계가 응결된 의미있는 공간이다.

#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근대문학의 터전

1924년 단편 '세길로'로 등단 소설·평론 등 200여 작품 남겨 왜곡된 역사 흐름 담은 '탁류' "한국 근대문학의 한 정점"

2001년 금강인근에 문학관 건립 문학적 생애·작품세계 깃들여

## <8> 군산 채만식 문학관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1938년 '조공'이라는 잡지에 연재됐다. '탁류'와 함께 채만식(1902~1950)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로, 윤치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가계의 일상사를 풍자적인 시각으로 다뤘다.

윤치환이라는 인물은 돈과 집안의 안일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일제의 힘을 빌어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다. 손자 종수는 방탕한 생활에 젖어 군수라는 꿈과는 먼 생활을 한다. 유일한 그의 기대주 손자 '종학'은 사상 문제로 경찰에 붙잡힌다. 윤치환은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태평천하에 손주인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윤치환은 태평천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과 손주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를 떠올리며 군산으로 향한다. 코로나 사태로 오늘의 세상은 '근심천하'가 된지 오래다. 누구인들 태평천하를 바라지 않겠는 가마는, 사람의 뜻대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평안과 평탄의 세상은 오지 않을지 모른다.

군산은 한마디로 근대의 역사이자 근대의 도시다. 외양로나 속살로나 근대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수탈과 소외는 근대와 개항이라는 길항의 관계에서 배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남해안의 또 다른 도시, 목표와 닮은 듯 다른 느낌을 한기한다.

군산에는 금강 하류가 굽이쳐 흐른다. 항구도시에 강이나 바다가 면한 것은 당연지사다. 강이 바다

와 인접한 곳이라 물이 빠질 때면 허연 빠처럼 바닥이 드러난다. 서해로 빠져나가는 금강 물줄기와 연안으로 흘러드는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물이 풍부하고 교류가 빈다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물적 토대를 갖췄다. 일제가 수탈의 본거지로 삼았던 이유다.

채만식은 전북 옥구 임피면 읍내리 동상마을에서 6남매 중 5남으로 태어났다. 임피보통학교에 입학했으며 한학을 병행했다. 이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한다. 축구선수로도 활약했던 그는,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과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백룡(白龍) 채만식문학관은 군산시 내흥동에 자리한다. 1924년 단편소설 '세길로'가 조선문단에 당선돼 문단에 나온 그는 1950년 타계 직전까지 소설, 희곡, 평론 등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지난 2001년 금강 인근에 건립된 문학관에는 작가 채만식의 문학적 생애와 작품세계가 오롯이 집약돼 있다. 이곳에는 작가의 유품과 당대 발행되었던 문학잡지 등이 보관된 자료실, 다양한 문학행사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세미나실 등이 있다. 그다지 넓거나 세련된 공간은 아니지만 군산의 이미지와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무엇보다 앞으로 펼쳐진 수수한 정원과 오른쪽으로 펼쳐진 금강의 풍경이 압권이다. 고개를 숙이면 금강이라도 허리춤으로 금강의 물살이, 서해의 파도가 굽이쳐 밀려올 것 같다. 먼 바다와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문학관은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지 싶다. 문학관 옥상에 오르면 군산 바닷가와 금강 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작가는 이곳에서 식민지 현실을 아파하며 시류에 따라 수시로 뒤바뀌



문학관 인근은 서해로 빠져나가는 금강 물줄기와 연안으로 흘러드는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는 인간 군상들의 행태들을 굽어봤을 것이다. 시대는 다를지언정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사람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 군상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구한말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사람은 변하게 돼 기에 사람을 보지 말고 너머너머의 유구한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두르고 휘둘러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열려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시가지)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소설 '탁류' 중에서)

'탁류(濁流)'라는 제목은 상징적이면서도 풍자적이다. 제목 자체에 기의가 드리워져 있다. 작가는

타락한 세태를 혼탁한 물살에 빚었다. 조금 넓은 의미로 확장해보면 왜곡된 역사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수렴된다. 소설은 정주사라는 집안의 몰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군산이란 항구를 무대로 타락한 인물들의 삶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그리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식민지하의 민초들의 모습을 과감없이 그려낸다.

"채만식의 '탁류'는 끊임없이 다시 읽어야 할 그 큰 작품이다. '탁류' 전반을 가로지르고 있는 만만치 않은 문제성 때문이다. '탁류'는 채만식 문학의 총화이자 한국 근대문학의 한 정점이다. 채만식은 무엇보다 주변부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 주변부로 편입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시선을 보낸 작가이다."(류보선, '교환의 정치경제학과 증여의 윤리학', '채만식 중·장편소설 연구', 소명출판)

이처럼 채만식은 전통적 시스템과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려버리지 않는다.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굴절과 아픔은 상승과 하강이라는 서사에 연계된다. 그러므로 "흐린 세태나 시류 또는 사회적 경향"의 탁류가 "거쳐 없어 떠도는 사회의 일탈 계층"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근대문화를 둘러보고 탁류의 배경지 금강 언저리에 선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도도한 물살의 흐름은 여윌이다. 채만식이 호를 '백룡'이라 지었던 것은 부평초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상징했기 때문인 것 같다. 비록 세파에 흔들릴지라도 정신만큼은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백룡의 의지가 가늠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 채만식 조형물.



문학관 전시실에 비치된 다양한 자료들.



원고지 모형의 벽면에 새겨진 작가의 작품.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